민족문화연구 제82호 편집자의 말

『민족문화연구』 제82호에는 기획특집 논문 4편, 일반 논문 10편, 해제 1편을 포함, 총 15편의 논문이 수록되었다. “조선 후기 개인 담론과 자술 문학”을 주제로 한 기획특집 논문 4편에 대해서는 ‘특집의 말’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일반 논문과 해제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강혜정은 「阿弄曲」을 중심으로 고려가요 「井邑詞」의 전승 양상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아롱곡」은 「정읍사」와 노랫말의 일부가 같고, 둘 다 관 소속의 기녀들에 의해 연행되었으며 궁중 정재에 익숙한 상층에 의해 향유되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저자는 「아롱곡」이 함경도 관찰사인 이만수가 투호 경기 때 부르던 노래를 모은 책인 『投壺雅歌譜』에 수록되어 있는 점에 착안하여, 본디 궁중 가요였던 「정읍사」가 함경도 지역의 관아를 중심으로 투호 놀이의 승전가인 「아롱곡」으로 변형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정읍사」는 본디 백제 민요였다가 고려 시대에 궁중 가요로 채택되었으며, 조선 후기에는 사대부를 중심으로 한 민간 가요로 가창되며 시대에 따라 여러 향유층을 넘나들며 전승된 것이다.

소순규는 조선 세종조 配享功臣 申槩의 정치적 역할과 종묘 배향의 배경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신개는 세종의 종묘에 배향된 다른 공신들에 비해 그 뚜렷한 배향 이유를 알기 어렵다. 하지만, 신개는 제2차 여진 정벌을 주도하는 등 세종 당대의 중요한 정치적 사안에 매우 핵심적으로 활약하였고, 특히 국왕 세종의 의사에 부합하는 사안의 추진능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세종 말년 상당 기간을 실질적 수상으로서 재직하기도 하였다. 이 글은 이러한 신개의 정치적 역할을 재조망하고 이를 통해 신개가 배향공신이 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밝히고 있다.

신지영은 『훈민정음』 해례의 ‘후(喉)’에 대한 기존 학설에 문제를 제기하고, ‘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저자는 『훈민정음』 해례의 자음에 대한 인식 및 ‘아, 설, 순, 치, 후’가 지니는 음성학적 의미를 검토한

후,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후두' 혹은 '성문'으로 '후'를 이해하는 선행연구와 달리, '후'가 '목구멍', 즉 '구강과 인강에 의해 만들어지는 ㄱ자 관의 구강 쪽 끝부분'을 의미한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유진희는 思菴 朴淳의 즉흥시를 통해 그 속에 드러나는 박순의 정서를 고찰하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박순의 즉흥시에는 공무로 바쁜 와중에 자연에서 느끼는 여유로움,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의 말과 태도에 대한 불만, 혼란한 세상에 지쳐 조용히 은거하는 삶을 편안하게 여기는 그의 정서와 내면이 잘 드러나 있다.

박미선은 역사 문헌에 존재하는 '가족' 관련 용례를 검토하여 그 기원과 출현 배경 및 의미의 변천을 고찰하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최초로 확인되는 한자어 '家族'은 정치행정단위로서 식읍의 식솔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 후, 고려시대까지 가족이라는 한자어는 사용되지 않았고, 조선시대 문헌에 등장한 '가족'이라는 용어는 공동성과 정치적 성격을 띠었다. 조선시대에 가족은 공공의 유대성 속에서 사적 성격을 지닌 집단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종법 체제의 부활이라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이재두는 『여지도서』의 편찬시기와 항목구성 및 신설항목의 유래에 대해 밝히고 있다. 저자는 『여지도서』의 경기도・강원도・함경도 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연대의 하한선인 경진년(1760, 영조 36)으로 편찬시기를 추정하고 있다. 또한,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여지도서』 항목을 비교 고찰하면서, 『여지도서』의 신설항목이 조선 초기의 관찬 지리지보다 『함주지』를 비롯한 『승평지』와 『포산지』 등 사찬읍지의 영향을 더욱 많이 받았음을 밝히고 있다.

조희영은 『周易象義占法』에 나타난 白雲 沈大允 易學의 특색을 살피고 있다. 심대윤은 『주역상의점법』에서 두 효 이상 변할 경우에는 朱子占法과 다른 새로운 占法을 발명해 소개하고 있고, 효가 변하는 효변설을 주장하면서 이 변효를 중심으로 점괘를 판단하고 있다. 또한, 선후천설을 자신의 이론 분석틀 및 논리 구분의 기준으로 삼아 모든 역리를 선후천으로 수렴시키고 있다.

이명학은 1920-30년대 조선 총독부의 불량주택지구 개선사업의 전개과정과 그 특징을 고찰하고 있다. 이케가미 시로(池上四郎)의 부임과 함께 조선총

독부는 불량주택의 위법성과 유해성을 동시에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웠다. 하지만, 이 사업은 빈민의 거주환경에 무관심한 수뇌부가 들어서면서 수포로 돌아갔으며, 대신 식민권력은 불량주택을 변두리에 집결시키는 사업을 시행했다. 조선총독부의 불량주택지구 개선사업은 빈민의 거주환경 개선과는 거리가 멀었고, 더욱 악화된 '슬럼지구'를 확대 재생산하는 결과를 낳았다.

김주리는 손창섭 소설 속 의협과 폭력을 분석함으로써 손창섭 장편소설의 의미를 재고하고 있다. 「낙서족」, 「저마다 가슴 속에」, 「인간교실」, 「아들들」, 「길」 등 손창섭의 60년대 장편소설은 개인적 정의와 물리적 폭력 사이에서 일정한 균열을 보여주며, 개인적 정의에 입각한 의협이 개발독재 사회 현실에서 무의미한 폭력으로 귀결하거나 자본주의 가부장제 질서로 회귀할 뿐임을 보여주고 있다.

양수경・이주랑은 탈북민 화법 연구에 나타나는 언어 이데올로기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탈북민 화법 연구를 대상으로 언어 이데올로기의 기호 과정을 조사한 결과, 분석 대상 논문의 80%에서 언어 이데올로기의 기호 과정이 존재하였다. 이는 탈북민 화법의 이질성을 강조하고, 탈북민 화법과 남한 토박이 화법의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남북한 언어의 대립 구도를 재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저자는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선행 연구의 기저에 존재하는 이질성 위주의 인식 틀을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정우봉은 18세기 문인 삽교 안석경의 저술을 개괄하고, 그중 필기잡록인 『霅橋漫錄』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삽교만록』은 정치・경제・역사・문화・학문 등 다방면에 걸쳐 저자 자신의 견문과 주장을 수록한 것으로, 저자가 강원도 횡성 삽교리에 은거하던 1770년부터 1773년 사이에 저술된 것이다. 이는 18세기 전반기의 대표적 필기 저술로, 조선 후기에 이르러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갔던 필기 산문의 변화상을 추적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

『민족문화연구』 제82호에 수록된 논문 15편을 분야별로 개괄하면, 문학 8편, 어학 2편, 역사 3편, 철학 2편으로 문학 방면에 치우친 면이 없지 않지만, 이는

문학 전공자들이 기획한 기획특집 논문 4편이 수록된 데 기인한 것이다. 오히려 최근 『민족문화연구』에 투고되는 논문은 문학과 역사, 철학을 넘어, 미술과 영화 등에까지 그 전공 영역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또한 투고 논문 편수도 많아져서 보다 다양한 분야의 풍성한 논의를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민족문화연구』 편집위원회는 앞으로도 한국학 전반에 대한 창의적인 연구를 지지하며 훌륭한 연구 성과가 지속적으로 투고되기를 기대한다.

민족문화연구 편집위원회